

암묵적인 자기 범주화의 성차*

조 혜 자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방 희 정†

이화여대 심리학과

이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암묵적인 수준의 자기 범주화에 남녀차이가 있는지를 밝히 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성별과 인종, 연령을 변화시킨 얼굴사진들을 자신과 타인관련 단어들과 함께 분류하도록 하는 세 가지 암묵적 연합검사(IA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에 대한 범주화는 남녀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남성들은 성별에 따르는 자기 범주화가 분 명하지 않았지만, 여성들은 성별에 따라 분리주의적으로 범주화를 하고 있었다. 한편 인종과 연령범주는 남녀 모두 내집단과 외집단을 분명히 구별하는 나누는 범주로서 남녀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들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자기 범주화, 암묵적 연합검사, 성별범주, 인종범주, 연령범주

* 본 논문은 2004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FRF-2004-074-HS0005)

이 연구를 도와준 이화여대 발달/여성 심리 연구팀에게 감사한다.

†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E-mail : hjbang@ewha.ac.kr

인간은 유사한 대상들을 거의 자동적으로 분류하고 범주화한다. 범주화는 공통특징, 속성, 기능을 중심으로 대상들을 집단으로 묶는 것으로써, 한정된 인지능력을 가진 인간이 복잡한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도록 해준다. 우리는 물리적 대상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해서도 범주화를 하게 되는데, 사회적 세계를 신속하게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효율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이다. 인물범주에는 그에 부착된 사회적인 의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 그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인물에 대한 범주화는 인간의 한정된 인지능력을 보완해 주는 동시에 범주와 관련된 사회적인 의미내용과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범주화 처리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물범주와 관련된 고정관념을 적용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Macrae & Bodenhausen, 2001).

범주화는 타인을 지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거대 사회 속에 살면서 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는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가 자신을 범주화하고 명명하는 방식을 자아에 반영하게 된다. 즉 우리들은 타인을 범주화하듯이 스스로를 범주화하여 비개인화(depersonalize) 시킨다(Turner & Oakes, 1989). 사람들은 자신의 범주와 관련된 특성들을 자기 정의에 포함시키며, 자신이 속한 범주집단의 태도와 감정, 행동에 자신을 동화시켜 나간다. 이러한 자기 범주화는 집합적 자아(collective self)의 기초가 되며, 개인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갖게 만들 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사회 정체성 이론에 의하면, 자기 범주

화는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기능을 하며 이후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Mackie & Hamilton, 1993). 개인이 자신의 소속범주를 현저하게 지각할수록 자신이 속한 범주의 사람들을 내집단으로 지각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그 범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외집단으로 지각하면서 비우호적으로 고정관념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인간은 여러 개의 범주에 속해 있지만, 상황에 따라 가장 현저한 범주를 자신이 속한 자기 집단으로 설정하고, 자기 정의를 내리는데 그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주장되고 있다(Boldry & Kashy, 1999). 즉 다양한 범주 가운데 어떤 범주를 중심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나누느냐에 따라 자아감도 다르고 고정관념의 적용도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소속된 집단에 대해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외집단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기대를 하게 된다(Devine, 1995).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범주화하는 이유는 자존감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되기도 하였다(Turner 등, 1989). 이와 더불어 자신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내집단은 다른 개성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과 다른 범주의 외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동질적이고 유사한 특징과 동기를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져 왔다(Nelson, 2002). 즉 내집단에게는 고정관념을 덜 적용하지만, 외집단에 대해서는 동질성을 강조하게 되므로 고정관념을 적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속한 범주들은 자신을 고양시켜주는 지배집단에 속하는 범주도 있지만, 종속적인 집단에 속하는 불만스러운 범주도 있다. 개인이 유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범주구조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종속적인 범주집단에서 벗어나 지배집단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불만스러운 범주내용을 감추거나 탈동일시(disidentify)하면서 정체성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Aronson, Quinn & Spencer, 1998). 예를 들어 여성 스스로 자신은 여성이 아닌 것처럼 다른 여성들을 비하하면서 성 고정관념을 더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별 자체는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으로, 이와 같이 눈에 띄는 인구통계학적 범주는 부정하거나 숨길 수 없다.

많은 학자들은 인간범주 가운데 가장 현저한 범주는 성별, 인종, 연령이고, 이러한 초기 범주들은 대상을 만났을 때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범주화가 이루어지며, 앞으로 대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해 왔다(Fiske, 1998; Nelson, 2002). 이렇게 범주화하는 이유는 이 범주들이 가장 즉각적이고 명백하게 눈에 띄는 시각적인 개인의 특성일 뿐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행동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동일한 범주일지라도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언어적으로 전달되는 경우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각적인 범주라 하더라도 사회적 지위와 연결되는 문화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때 더 현저한 범주가 된다(Bodenhausen & Macrae, 1998). Bodenhausen 등(1998)은 우리가 여러 방식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일차적인 범주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범주들의 활성화는 억제되고, 초기 범주화에 편향효과를 일으킨다고 지적한바 있다. 즉 맥락이 무엇이나에 따라 현저한 범주가 결정될 수 있지만, 동시에 현저하게 지각되는 인구통계학적 범주는 다른 범주들보다 초기 범주화

될 가능성 또한 높다. 나아가 성별과 인종,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범주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문화적인 의미인 고정관념들이 존재하므로, 이것이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이 범주들을 기초로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보고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수준에서 내 집단과 외집단을 어떻게 구분 짓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성별범주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많은 학자들은 성별은 일차적이고 가장 현저한 범주라고 지적해 왔다(Fiske, 1998). 일찍이 James(1890)도 성별은 우주를 구분 짓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적인 차원이고 자기에 속한 것과 속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범주라고 보았으며, 이후 연구자들도 세 가지 인구통계학적 범주들 가운데 지각자의 주의를 분명하게 끄는 범주는 성별이라고 밝혀왔다(Fiske, Haslam, & Fiske, 1991; Stangor, Lynch, Duan, & Glass, 1992). 일차적으로 사회는 일상에서 이분법적으로 범주화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인간 범주 중 가장 눈에 띄고 이분법적이며 사회가 중시하는 범주가 성별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성별을 구별하게 된다고 보아 왔다(조혜자, 2002).

그러나 성별범주 내에서도 남성범주와 여성범주는 다르게 지각됨이 밝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별범주와 같이 이분적인 범주는 복잡한 실재를 단순하게 나눔으로써 불안정한 구조를 만드는데, 이런 불안정성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지배적인 범주를 기본값(default)으로 간주하고, 종속적인 범주를 표지를 단(marked)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다(Nelson, 2002). 이런 경우, 기본값을 가진 집단은 범주를 초월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표지를 단 집단은 더욱더 현저하게 지각되고 그 범주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성별 범주에서는 남성범주를 지배 범주로, 여성범주를 종속 범주로 간주해 왔다. 따라서 의사, 변호사가 남자인 경우에 우리는 그냥 의사, 변호사라고 하지만, 여자인 경우는 여의사, 여변호사라고 하게 된다. 이런 원리에 의해 남성은 ‘성별’을 초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은 더 ‘성별’에 묶여 있는 것처럼 지각되고, 남성범주의 의미와 여성범주의 의미표상은 대칭적이지 않고, 여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재호, 조혜자, 및 방희정(2001)은 성별 범주에 대한 표상이 여성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점화실험을 통하여 밝혀내었다. 이 연구에서는 남녀 피험자들에게 남성이름이나 여성이름을 점화자극으로 150ms 동안 제시하고, 100ms 경과한 다음 여성이나 남성의 고정형적인 속성단어를 제시하여 명명(naming)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남녀 피험자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 이름이 제시된 경우 전형적인 속성단어 명명에 촉진효과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는 자신이 속한 범주와 일치하므로 반응이 빠르다고 해도, 남성들의 경우에도 여성범주 우선성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여성은 소위 표지를 단 집단으로 쉽게 성별로 묶이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재호, 조궁호, 오경기, 및 김미라(2001)의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다. 이들은 명명 과제(naming task)를 적용하여, 여성속성과 남성속성 단어들을 점화자극과 목표자극으로 제시하고 목표단어에 대한 명명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여성-여성’ 조건이 ‘남성-남성’ 조건이나 ‘여성-남성’ 혹은 ‘남성-여성’ 조건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었다. 특히 남

자들의 경우 남성 속성에 대한 점화효과보다 여성 속성에 대한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었다.

이와 같이 여성범주가 남성범주에 비해 더 현저한 범주이고, 남성들도 남성범주보다는 여성범주에 편향된 반응을 보인다면, 남성과 여성이 성별로 자신을 범주화할 때에도 이러한 반응이 보이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내집단과 외집단이 분명하게 나뉘는 배타적인 범주는 아니다. 남성과 여성은 한 가족 내에서 부부, 부모자녀, 오누이 등의 가까운 애착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성애 관계에서도 매우 친밀하게 밀착되어 있다. 즉 자신을 규정하는 내집단이 성별 범주보다는 가족 범주나 애인 범주와 같이 더 작고 친밀한 범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개인이 자기 범주화를 할 때에는 성별 범주가 내집단과 외집단을 나누는 일차적 범주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이같은 현상이 다른 사회적 범주들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종 범주

인종 역시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범주일 뿐 아니라, 그 범주에 속한 사람들의 국적, 지위를 예측케 해 주는 생물학적 범주이다. 특히 미국과 같은 다민족 나라에서는 인종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역사와 현재의 사회적 지위, 종교적 취향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어 왔다(Baumeister, 1998). 인종에 대한 범주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피부색으로, 일차적인 인종 범주화는 시각적인 피부색을 기초로 이루어진다고 지적된다(Fiske, 1998). 따라서 얼굴색이 검은 사람들은 흑인으로 묶여 범주화되며,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들은 묶여 동양인으로 범주화된다. 특히 백인과 흑인은 시각적으로 현저하기 때문에 빨리 범주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각적인 범주화는 자동적으로 인종 고정관념을 활성화시키고,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게 되기 쉽다.

미국 사회에서 인종 차별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대한 연구와 이론들이 주로 인종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왔다. 미국 사회에서 백인은 지배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기본값(default)을 갖는 집단으로, 인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집단이지만, 흑인들은 표지를 단 집단, 인종이 더 부각되는 집단이다(Fiske, 1998). 인종에 대한 범주화는 자동적으로 고정관념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따라서 흑인들은 부정적인 인종고정관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인종 고정관념이 자동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은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의 개발로 잘 밝혀지고 있다. Dasgupta, Greenwald, 및 Banaji(2000)는 암묵적 연합검사로 컴퓨터 상에서 흑인과 백인의 얼굴 사진이나 이름을 분류하게 하면서 쾌, 불쾌 단어들을 분류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백인얼굴을 쾌 단어들과 동일한 키를 눌러 같이 분류하고 흑인얼굴을 불쾌 단어들과 같이 분류하게 할 때에는 반응이 빠르지만, 백인을 불쾌 단어와, 흑인을 쾌 단어와 함께 분류할 때에는 반응이 느려졌다. 이러한 자동적인 인종 선호현상은 사진 뿐 아니라 이름에서도 나타났다.

Ito와 Urland(2003)은 이전 연구들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자동적인 활성화에 대해서는 밝혔지만, 범주화를 직접적으로 연구하지 못해온 한계를 극복하고자 뇌의 ERP를 측정하여 범주화의 초기현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들

은 인종과 성별이 혼합된 인물들의 사진을 제시하고 범주화 판단을 하게 하면서 뇌의 Fz, Cz, Pz 부분에서의 ERP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초기부터 인종과 성별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지만, 초기의 주의를 성별단서보다는 인종단서를 더 향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흑인과 백인의 얼굴색깔의 밝기를 회색으로 동일하게 맞추었을 때에도 같았다. 즉 시각적 현저함을 조절할지라도 인종에 대한 주의가 크며, 주의의 초기에는 덜 규준적인 인종집단인 흑인에게 더 향해지다가 점차 내집단을 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리적인 지표는 범주화의 초기현상은 잡아낼 수 있지만, 자신을 어떤 집단에 더 소속시키고자 하는지를 알아내는 데는 제한적이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으로, 국적과 종족이 집단적 자아의 구성요인이 되고 있다(이철우, 2003). 우리 민족은 19세기 말까지 수세기 동안 다른 지역과의 인구 교류가 적었기 때문에 같은 영토에 살면서 공통의 역사, 문화를 가지고, 같은 혈통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 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한국인이라는 민족 정체감을 형성하고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인종보다는 오히려 지역이 더 중요한 범주라는 지적도 있지만(김혜숙, 1999), 국제적인 운동경기나 국가 위기 시에 한민족들이 보이는 연대감은 내면화된 민족적 우리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 준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배타적인 태도는 민족을 근거로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범주화가 강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설동훈(1997)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주 노동자들 가운데 중국 동포 산업 연수생들에

대해 가장 호의적이고 비한국계 불법체류 노동자들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다. 즉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같은 혈통에 대해서는 우리 의식이 작용하여 같은 범주로 묶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한국인과 외국인의 범주는 흑인과 백인처럼 피부색으로 구분되는 현저한 특성은 아니지만 매우 빠르고 현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Ito 등(2003)의 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별보다 인종 범주가 더 빨리 주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의 경우에도 인종 범주가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별하는 범주인지, 그리고 이 같은 인종 범주화에서 성차는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탐색이다.

연령 범주

연령도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범주이지만 인종이나 성별과는 달리 연령 범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Nelson, 2005). 그러나 발달 연구들은 아동이 나이의 차이를 가장 먼저 알게 된다고 지적해 왔다. Kohlberg(1966)는 아동이 처음에는 사람의 크기 차이를 알고 다음에 연령 차이를 알게 된 후 성 차이를 알게 된다고 보았다. 이후 Van Parys(1983)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아동들의 나이역할에 대한 이해가 성 역할 이해보다 빨리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우남희(1994)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나이역할 이해가 서양의 연구결과보다 유의미하게 빨리 발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발달차이는 우리의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더 확실하게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그녀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부터 어른과 연장자에 대한 공경을 중시해 왔을 뿐 아니라 존대말 사용을 강조하

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아동은 연령 범주를 가장 먼저 배운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연령을 아는 것이 일차적이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 왔다. 우리 문화가 강조해 온 노인이나 연장자에 대한 공경은 노인을 내집단으로 수용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빠른 사회변화와 더불어 세대 간 갈등이 증가되면서, 젊은이들은 노인을 내집단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배타적으로 인식하면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도 증가하고 있다. Nelson(2005)은 과거에는 노인들에게서 구전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지혜를 얻으며 종족의 역사를 알았지만, 이제는 활자의 발달로 더 이상 노인들의 지식이나 전승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기술혁명과 더불어 요구되는 활동성과 신속성에는 적응하지 못하면서, 수명은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기여 못하는 사회적 짐”으로 그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매우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직업에서 물러나 사회적으로 합법적인 활동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젊은이들과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기 어렵게 만든다. 더구나 유교적인 가치가 몸에 배어있고 가난과 전쟁을 겪으며 살아온 어른들과 자유와 풍요를 누리며 살아온 젊은이들의 삶의 태도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황상민, 양진영, 및 강영주, 2003). 이러한 세대 간의 차이는 지난 몇 년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Inglehart(1997)에 따르면, 세대차와 관련하여 산업화된 43개 국가 중 한국이 가장 큰 세대차를 보이

는 사회라는 것이다.

더욱이 과거에는 확대가족 안에 살면서 조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지만, 점차 두세대 가족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노인들과의 접촉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연령에 대해 예민한 젊은이들의 눈에는 노인들이 사회를 위해 할 일이 없으면서도, 보수적이고 사회적 이슈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보일 수 있고,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범주의 사람처럼 지각되면서 고정관념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Nelson(2005)은 각기 다른 연령집단의 연령 고정관념을 알아본 결과, 젊은이들이 중년 집단보다 더 노인에 대해 강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학생들에게서는 연령 범주가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별하는 기본적인 범주가 되는지, 그리고 성차는 없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암묵적 범주화의 측정

Greenwald와 Banaji(1995)는 사람들은 명시적인 상태에서 뿐 아니라 암묵적인 상태에서도 자아가 자동적으로 작용하고 사회적인 정보를 처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자아의 암묵적인 작동을 측정하려는 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제통각검사(TAT)와 같은 간접적인 측정방법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인지혁명 이후에는 점화(priming) 연구가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범주화 현상이나 내집단 편애 현상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Perdue, Dovidio, Gurtman, 및 Tyler(1990)는 내집단(‘우리’)과 외집단(‘그들’)에 대한 대명사들을 컴퓨터 상에 식 역하 수준(55ms)에서 제시한 후 대명사가 제시된 자리에 긍정, 혹은 부정

적인 형용사를 제시하고, 어의 판단을 하게 하였다. 그 결과 내집단 관련 단어가 제시된 이후에 나온 긍정 형용사들이 더 빨리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실험은 사람들이 의식수준 이전부터 범주화를 하여 자기 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대를, 외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대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최근에는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의 개발로 명시적인 검사만으로 밝힐 수 없었던 자아 존중감, 고정관념과 같은 사회적 태도를 측정해 낼 수 있게 되었다(Greenwald & Farnham, 2000; Greenwald, Banaji, Rudman, Farnham, Nosek & Mellott, 2002). IAT는 이분법적인 사회적 범주와 속성들을 빠른 속도로 분류하게 하여 이들이 어떤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Greenwald 등(2000, 2002)은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타인의 범주와 쾌-불쾌 범주를 사용하여 연합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들은 자기-타인 범주와 관련된 대명사들(I, me, mine/they, them, their)을 컴퓨터 상에서 분류하게 하고, 쾌-불쾌와 관련된 단어들(cheer, happy, peace/death, jail, sickness)을 분류하게 한 뒤, 이후 두 범주를 짝지어 분류하게 하였다. 그 결과 자기와 관련된 대명사를 쾌와 짝짓고 타인과 관련된 것을 불쾌와 짝지어 분류할 때에는 반응이 빠르지만, 자기 관련 대명사를 불쾌와 짝짓고 타인을 쾌와 짝지어 분류하는 경우 반응이 느렸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긍정적인 것과 연합하여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IAT는 주로 자존감이나 고정관념과 같은 사회적 태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사회적 개념과 속성 관련 범주가 짝지어질 때의

연합 반응을 알아보는데 적용되었다. 나아가 범주 유형들을 변화시키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데, 특히 자기-타인 범주와 다양한 사회적 범주를 사용하여 자기 범주화 과정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자존감 연구나 고정관념 연구들은 언어자극을 사용하고 있지만, 범주화 연구에는 언어자극이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단일 언어자극으로는 다양한 인간 범주를 복합적으로 함께 내포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Bargh(1994)는 범주의 자동적 활성화는 실험조건에서 거의 범주화된 언어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현한바 있다. 얼굴사진 자극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줄 뿐 아니라 초기에 어떤 범주선택이 더 촉진 또는 금지되는지, 어떤 범주가 더 현저한지, 범주경합에서 어떤 범주 활성화가 더 우선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즉 얼굴 사진자극을 이용한 암묵적 연합검사(IAT)를 사용함으로써 자기 범주화 현상을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본 연구는 유교전통의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문화 속에 살고 있는 한국의 남녀 대학생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자동적으로 구분 짓고 연합하는지,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어떤 범주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밝히기 위해 시도되었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남녀 대학생들은 남녀성별에 대한 범주에 얼마나 강하게 자기를 연합시키는가? 이러한 성별 자기 범주화 양상은 남녀 간에 차이

가 있는가?

2. 남녀 대학생들은 외국인과 한국인에 대한 인종범주에 얼마나 강하게 자기를 연합시키는가? 이러한 인종 자기 범주화 양상은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가?

3. 남녀 대학생들은 젊은이와 노인에 대한 연령범주에 얼마나 강하게 자기를 연합시키는가? 이러한 연령 자기 범주화 양상은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 대상자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130명(여학생 64명, 남학생 6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두 한국인이었고, 연령분포는 19세-28세이었다.

연구재료

자기 범주화에 대한 암묵적 연합검사 제작을 위해 범주명들과 자극단어들이 준비되었다. 자아와 관련된 범주명은 '나', '너'가 사용되었고, 여기 속하는 단어들이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다.

나: 나, 나의, 내 것, 우리, 우리들,
나를, 우리 것, 내가, 우리가, 우리를
너: 너, 너의, 네 것, 너희, 너희들,
너를, 너희 것, 네가, 너희가, 너희를

성별에 대한 범주명은 '남자', '여자'를 사용하였고, 인종에 대한 범주명은 '한국인', '외국

인'이었으며, 연령에 대한 범주명은 '젊은이', '노인'이었다. 이들 각각의 범주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자극을 만들기 위해 성별과 연령, 인종을 변화시킨 인물사진이 다음과 같이 준비되었다.

- 한국인 노인 남자 사진: 5개
- 한국인 노인 여자 사진: 5개
- 외국인 노인 남자 사진: 5개
- 외국인 노인 여자 사진: 5개
- 한국인 젊은이 남자 사진: 5개
- 한국인 젊은이 여자 사진: 5개
- 외국인 젊은이 남자 사진: 5개
- 외국인 젊은이 여자 사진: 5개

따라서 전체 사진은 40개이며, 이를 범주별로 보면 한국인 20개, 외국인 20개, 남자 20개, 여자 20개이며, 젊은이 20개, 노인 20개가 된다. 사진은 각 조건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경우 책에서 선택하였고, 한국인의 경우 직접 대상을 구해서 사진을 찍었다. 두 경우 모두 범주조건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사진으로 최종 선택하였다. 색상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 모두 흑백사진으로 전환하였으며, 실험에서 사용한 사진자극들은 명도를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이런 자극을 기초로 세 가지 유형의 암묵적 연합검사(IAT)를 제작하였다¹⁾. 검사 1은 성별 자기 범주화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나-너 범주와 남자-여자범주를 사용하였고, 검사 2는 인종 자기 범주화를 측정하기 위해, 나-너 범주와 한국인-외국인 범주를 사용하였다. 검사 3은 연령 범주화를 위한 것으로, 나-너 범주와

젊은이-노인 범주를 사용하였다. 이들 자료들은 counterbalance 되어 제시되도록 IAT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절차

실험 참여자들은 컴퓨터 실험실에서 10-15명씩 검사에 참여했으며, 실험 보조자들이 개인별 검사과정을 도왔다. 반복측정 설계에 따라 모든 참여자들은 컴퓨터를 통해 세 가지 유형의 IAT 검사에 반응하는 절차를 따랐다. IAT 검사는 Greenwald 등(2000, 2002)의 방법을 따라 5단계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듣고 고정관념, 대인관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 뒤, IAT 검사로 들어갔다.

각 단계에서 참여자는 컴퓨터 화면 중간에 나타나는 자극이 두 개의 범주('나'와 '너', '남자'와 '여자')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를 키보드 상에서 왼쪽의 'A'키와 오른쪽의 'S'키를 가능한 한 빠르게 분류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검사 1에서는 1단계에서 화면에 나오는 단어들인 '나'범주에 속하는 자극은 왼쪽 키를, '너' 범주에 속하는 것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였다. 한 자극이 나온 뒤 참여자가 옳은 반응을 하면, 곧바로 다음 자극이 나타나고 다음 반응을 하게 하였다. 2단계에서는 화면에 제시되는 인물사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1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3단계에서는 앞의 두 범주들을 합쳐서 화면에 제시되는 단어나 인물사진이 '나'이거나 '남자', 예 속하는 자극들은 왼쪽 키를, '너'이거나 '여자'에 속하는 자극들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케 하였다²⁾. 4단계에서는 '여자'와 '남

1) 암묵적 연합검사를 제작해 준 이근효 선생님께 감사한다.

2) 원래의 Greenwald의 프로그램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범주에 속하는 자극들이 무선적으로 나오

자'를 다른 쪽 키를 눌러 분류하도록 하였고, 5단계에서는 '나'이거나 '여자'에 속하는 자극은 왼쪽 키를, '너'이거나 '남자'에 속하는 자극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게 하였다. 1단계, 2단계, 4단계에서는 각각 40개의 자극에 대해 판단을 하고, 3단계와 5단계에서는 80개의 자극('나-너' 40개와 '남자-여자' 40개)에 대해 판단케 하였다. 이때 오류를 범하면 빨간 X 표가 화면 가운데 나오고 다시 반응을 하도록 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다음 검사들도 이루어졌다. 단, 검사 2(인종)에서는 3단계에서 '나'와 '한국인', '너'와 '외국인'이 짝지어졌고, 5단계에서 '나'와 '외국인', '너'와 '한국인'이 짝지어졌다. 검사 3(연령)에서는 3단계에서 '나'와 '젊은이', '너'와 '노인'이, 5단계에서 '나'와 '노인', '너'와 '젊은이'가 짝지어졌다.

자료분석

고정관념, 대인관계와 관련된 질문의 결과와 IAT 검사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 실험 참가자의 자료를 통합, 분석했다.

IAT 검사를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은 자기를 어떤 범주와 연합시킬 때 반응이 빨라지는지에 대한 것이므로, IAT의 종속 측정치는 각 검사의 3단계와 5단계에서 반응한 반응시간이었다. 각 개인의 반응은 반응시간과 오류율이 측정되었지만, 통계처리에서는 반응시간만 사

도록 구성되었지만, 그럴 경우 사진만 계속 나오거나 단어만 계속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여 modal effect가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극이 무선적으로 나오되 사진과 단어가 번갈아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용되었다. 이는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오류를 범하면 빨간 X표가 나오고 다시 옳은 반응을 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오류가 반응지연시간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각 반응 중 3000ms이 넘는 반응과 300ms보다 빠른 반응은 Greenwald 등(2000)의 지침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통계처리는 검사별로 3단계와 5단계의 반응시간(2)을 전체 남녀 참여자(2) 별로 이원변량 분석하고, 3단계와 5단계의 반응의 차이 값인 IAT 점수를 t 검증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각각의 범주에 대한 자기 범주화 양상을 알아보았다.

결 과

성별 범주화

성별 범주에 대해 자기 범주화를 하는 남녀의 평균 반응시간은 표 1과 같다. 이원 변량 분석 결과, 성별 범주 조건에 따른 주 효과가 나타났고, $F(1, 128)=19.44, p<.001$, 참가자의 성과 성별 범주와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했다 $F(1, 128)=75.84, p<.001$. 그러나 참가자의 성에 대한 주 효과는 없었다 $F(1, 128)=2.4, ns$. 즉 남성 참가자들은 '나'를 남자와 짝짓고 '너'를 여자와 짝지어 분류하는 일치상황의 반응시간이 불일치 상황의 경우보다 빠르고, 여성 참가자들도 '나'를 여자와 짝짓고 '너'를 남자와 짝지어 분류하는 일치상황의 반응시간이 더 빠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남녀 참가자들 모두 자신의 성별에 대한 범주화를 거의 자동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성별 범주에 대한 남녀의 반응시간 평균, IAT 점수 및 표준편차(ms)

참가자 성	성별 범주 일치	성별 범주 불일치	성별 IAT점수
	(남: 나-남자/너-여자 여: 나-여자/너-남자)	(남: 나-여자/너-남자 여: 나-남자/-여자)	
남성(n=66)	826.87(108.09)	873.87(143.94)	47.00(119.41)
여성(n=64)	808.84(110.26)	952.24(142.21)	143.40(129.79)

그러나 남녀 참가자의 반응 양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3단계와 5단계의 반응시간의 차이를 기초로 한 IAT 점수를 산출하여 남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여성의 IAT 점수가 남성의 점수에 비해 매우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t=4.41, p<.001$. 이는 여성 참가자들은 남성 참가자들에 비해 자신의 성별과 일치하는 조건에서는 반응이 빠르지만, 불일치 조건에서는 반응이 매우 느려짐을 의미한다. 즉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성별에 대한 범주에 더 민감하여, 자신을 남성 집단과 분리하여 내집단과 외집단을 더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종 범주화

인종범주에 대한 남녀 참가자의 반응시간은 표 2에 나와 있다.

이원 변량분석 결과, 인종 범주의 주 효과는 유의미하였지만 $F(1, 128)=192.94, p<.001$,

참가자의 성에 대한 주 효과는 없었고 $F(1, 128)=.10, ns$, 참가자의 성과 인종 범주와의 상호작용 효과도 없었다 $F(1, 128)=.99, ns$. 남녀 참가자들이 모두 나-한국인/ 너-외국인 조건에서는 빠른 반응을 보였지만 나-외국인/너-한국인 조건에서는 느린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3단계와 5단계의 반응시간의 차이를 기초로 한 IAT 점수를 산출하여 남녀차이를 t 검증해 본 결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모두 인종에 대한 자기 범주화가 매우 빠르고 현저함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이 자기 범주화를 할 때 인종이나 민족은 매우 중요한 인구통계학적 범주임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 연구에서는 흑인과 백인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색깔의 현저성을 없애기 위해, 얼굴색이 배제되고 모습만 다른 얼굴사진들을 사용했는데도 한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반응은 매우 빠르고 배타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저한 지각적인 차이가 없어도 예민하게 외국인들을 빨리 식별해 내고, 자기가 속한 내집단 범주에서 제외시킴을

표 2. 인종 범주에 대한 남녀의 반응시간 평균, IAT 점수 및 표준편차(ms)

참가자 성	나-한국인/너-외국인	나-외국인/너-한국인	인종 IAT점수
남성(n=66)	788.16(118.18)	932.54(142.28)	144.37(88.55)
여성(n=64)	804.54(126.37)	929.60(155.65)	125.07(129.43)

표 3. 연령 범주에 대한 남녀의 반응시간 평균, IAT 점수 및 표준편차(ms)

참가자 성	나-젊은이/너-노인	나-노인/너-젊은이	연령 IAT 점수
남자(n=66)	776.60(118.56)	883.19(154.68)	106.56(102.82)
여자(n=64)	796.71(123.51)	902.23(159.18)	105.52(124.86)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외국인들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보편적인 현상인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연령 범주화

표 3은 연령범주에 대한 남녀 대학생 참가자들의 반응시간을 보여준다.

이원 변량분석 결과, 연령 범주의 주 효과는 유의미하지만 $F(1, 128)=112.09, p<.001$, 참가자의 성에 대한 주 효과도 없고 $F(1, 128)=.76, ns$, 참가자의 성과 연령 범주와의 상호작용 효과도 없었다 $F(1, 128)=1.85, ns$. 남녀 대학생들은 모두 ‘나-젊은이/ 너-노인’ 조건에서는 빠른 반응을 보이지만 ‘나-노인/너-젊은이’ 조건에서는 느린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남녀 참가자의 3단계와 5단계의 반응시간의 차이를 기초로 한 IAT 점수를 산출하여 남녀차이를 t 검증해 본 결과도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남녀 상관없이 모두 연령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자기 범주화를 하고 있으며, 노인들과 자신들을 분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범주들 중 성별, 인종, 연령 범주가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

별하는 기본적인 범주인지를 알기 위해 세 개의 암묵적 연합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인종, 연령, 성별 범주는 모두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별하는 범주이었고, 이러한 현상은 남녀 모두에게 나타났다. 특히 인종 범주와 연령 범주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음에 비해, 성별 범주에서는 남녀가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별 범주에서는 남녀 모두 성별을 기준으로 자기 범주화를 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남녀에게서 차이가 나타나, 여성들이 성별을 근거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별하는 경향이 남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즉 남성들은 여성들을 외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지 않은데 비해, 여성들은 남성들을 자신과 분리된 외집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몇 가지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체성 협상이론들은 일반적으로 종속적인 범주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스러운 범주내용을 감추거나 탈동일시(disidentify)하면서 정체성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Aronson, Quinn & Spencer, 199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 범주의 종속집단으로 볼 수 있는 여성들에게서 주류집단에 속하는 남성들보다 더 분명한 성별 범주화가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체성 협상이 특정 인구통계학적 범주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적어도 여자

대학생들은 자신을 여성범주에서 탈동일시하면서 정체성 협상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 범주가 자아의 중심에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여대생들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아의 중심에 여성 범주가 놓여 있는데 비해 남자 대학생들에게서 성별은 자기를 규정하거나,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별하는데 최우선 범주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사회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접촉하며 살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에게 성별이 주는 의미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남성들은 주류집단에 속하므로 상대적으로 성별 범주에 따른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데 반해, 여성들의 경우 자신이 주류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여성으로서의 위치를 자기 점검해야 하는 일상경험으로 인해 오히려 범주 확인효과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남성 범주는 기본값(default)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남성들은 자기를 규정하는데 굳이 남성범주를 중심에 놓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성별 범주를 초월하는 집단이지만, 여성은 기본값에서 이탈된 범주로, ‘여성’이라는 표지를 달고 (marked) 성별 범주에 묶이는 집단이다(조혜자, 2005). 특히 대부분의 사회적 모임에서 여성들은 소수집단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타자가 되고,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여성들 스스로 성적 불평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여성 범주에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의 참가자들이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청소년기 대학생으로, 특히 이성에 대한 적극적 관심은 남학생들에게서 더 강

하게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학생들의 이성에 대한 능동적 관심이 여성 범주에 대한 자동적인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생물학적 설명 방식과도 일치한다. 즉 남학생들의 경우 여성을 외집단이 아닌 친밀한 집단으로 수용하려는 경향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자기 성을 중심으로 한 성별 범주화 반응을 상쇄했을 수 있다. 반면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이성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뿐 아니라 근대 여성 지위에 대한 의식화가 강화되는 사회적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여대생들의 경우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남성들의 시선이나 문화에 문제의식을 갖고 남성들과 경계선을 긋게 되는 과정에서 여성 중심적 성별 범주화 반응이 더욱 강하게 표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화심리적인 설명가능성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명료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범주와 남성범주가 비대칭적인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은 여성범주와 남성범주가 대칭적인 범주가 아닐 뿐 아니라(이재호 등, 2001; 2004), 남성과 여성 모두 여성범주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편향을 보인다는 것을 밝혀 왔고, Eagly(1995)는 이러한 현상을 ‘Women are wonderful effect’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여성들이 관계적이고 타인에 대해 배려적인 반면, 남성들은 자기 주장적이고 독립적이라고 보아 왔고(Erikson, 1966; Chodorow, 1989; Gilligan, 1982; Cross & Madson, 1997), 이러한 생각은 일반인들의 남녀의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정관념과 믿음이 여성 집단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 Glick과 Fiske(1999,

2001)는 고정관념의 내용모델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남성은 능력은 있지만 호감은 가지 않는 집단으로, 여성은 능력은 없지만 호감이 가는 집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도 암묵적인 수준에서부터 내집단 우선현상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호의적인 편향현상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즉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호감과 더불어 남성의 내집단 우선현상이 나타나 성별 범주효과가 상쇄되었지만, 여성들은 내집단 우선현상과 여성 호감이 합쳐져 강한 범주효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결국 성별범주의 남녀차이와 관련된 가능한 이유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면, 그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강한 설명력을 갖는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규명해나갈 과제라고 본다.

인종 범주의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별하는 강력한 범주중 하나가 인종이나 민족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실상 성별이나 연령 범주는 자신이 속한 친밀한 관계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범주가 아니라고 해서 외집단으로 배제시키기 어렵다. 예를 들어 애인이나 어머니 또는 아버지는 성별과 연령에서 자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자신을 규정할 때 가장 강하고 친밀하게 밀착되어 있는 관계들이다. 반면 외국인은 자신과 친밀한 관계로 혼입되는 경우가 없이 외집단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범주의 사람들이다. 따라서 실생활에서 인종이나 민족은 집단과 외집단을 구별하는 강한 범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Ito 등(2003)의 뇌 활성화 연

구에서도 입증되었다. 그들은 백인 피험자들에게 흑인과 백인의 남녀 얼굴사진을 제시하고 뇌 활성화정도를 측정했는데, 먼저 인종에 주의가 향해지며, 특히 흑인에게 먼저 주의를 기울이다가 내집단인 백인에게로 주의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비교문화 심리학자들은 우리 문화를 집단주의 문화로 규정하고,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목표를 자신이 속한 집단의 목표에 종속시키며, 집단을 자기의 확장으로 받아들여 강한 집단 정체감을 갖는다고 지적한다(조궁호, 1996; Triandis, 1990) 인구통계학적 범주들 중 내집단과 외집단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집단 정체감을 가질 수 있는 범주는 인종과 민족 범주이다. 최상진(2002)은 서구의 개인은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독특한 완성체로 구성되지만, 한국 문화권에서 개인은 그 자체로 완전성을 갖는 개별자이기 보다는 우리(we)라는 사회적 관계 단위 속에서의 부분자로서의 성격이 짙다고 지적한다. 한국인은 자신을 사회질서나 목표에 합일시켜야 한다는 사회지향적 자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에게 사회적 관계 단위의 가장 큰 단위가 민족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향성이 인종범주화에 강하게 반영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인종 범주화와 관련된 현상은 진화론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동물들조차도 동종이 아닌 동물들에게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만, 동종들끼리는 권력의 위계나 교미를 위한 경쟁 이외에는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orentz, 1986). 인간 역시 민족이 다른 집단과는 영토의 문제나 경제적인 경쟁 때문에 서로 배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 강조되어 왔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

로도 외세의 침략으로 많은 고통을 당해왔고, 최근 대학생들도 독도 문제나 미군철수 문제, 농산물 개방문제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을 자신과 분리해서 배타적으로 보는 태도가 자동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인종을 근거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범주화하는 현상은 애국심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서양과 달리 우리 문화에서 지금껏 인종문제는 심각하지 않았고, 따라서 인종편견과 차별에 대한 연구 또한 거의 이루어져오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배우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혼혈아에 대한 차별 문제도 이슈화되고 있다. 단일민족 개념을 오랫동안 지켜온 우리 문화에서는, 미국이나 다른 문화권에서보다 외국인들이 더 현저하게 지각될 가능성이 있고, 차별과 편견은 더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종 범주화와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 단일민족과 다민족 국가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후속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범주에 대해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 강하게 자기범주화를 하고 있었다. 연령을 중시하는 유교적인 배경에서 자란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연령범주가 자기 범주화의 기본이 된다는 것은 당연해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성별 범주나 인종 범주와는 달리 연령이란 연속적인 범주로서, 지금 현재 자신이 젊은이 집단에 속하더라도 그들 역시 언젠가는 노인 집단에 속하게끔 되어 있다. 즉 인종이나 성별은 나이가 들어가도, 환경이

바뀌어도 변화가능하지 않은 범주이지만, 연령은 내집단과 외집단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근거로는 약한 범주이다. 즉 노인범주는 미래의 자신도 들어갈 수 있는 범주일 뿐 아니라 친밀한 가족관계 내에 노인들이 존재하는데도 젊은이들은 자신을 노인과 분리하여 보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은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다.

Snyder와 Meine(1994)은 젊은 사람들이 노인과 자신을 분리하는 경향은 자신도 늙을 것이라는 데 대한 자기위협을 거부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Edwards와 Wetzler(1998)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다. 사람들은 위협적인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표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에 향하여 더 부정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젊음을 이상화하는 현대 문화 속에서 젊은이들은 노화와 관련된 것들을 자신과 연결시키기를 거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런 결과는 자기 긍정성 때문에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혜자와 방희정(2004)은 자신을 긍정적인 것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자동적인 반응이 고정관념보다 우선해서 일어남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측은하고 부정적인 모습이 우선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노인에 대해 탈 동일시하는(disidentify) 현상이 비롯되었을 수 있는 것이다. Cuddy, Norton 및 Fiske(2005)는 노인들은 따뜻하지만 무능한 집단으로 지각됨을 밝히면서, 이러한 현상이 범국가적이며,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른 한편 사회적인 기대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사회는 자신의 연령에 맞는 행동에 대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사회적 시계) ‘우리’와 ‘그들’을 분리하게 만든다고 지적되기도 한다(Nelson, 2005). 특히 우리 사회는 경노 사상이 강요되어 젊은이들은 원하던 원치 않든 노인이나 연장자에 대해 취해야 하는 행동 틀이 있고 따라서 자동적으로 연령 범주화가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연령을 근거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더 연구해 보아야 할 문제로 남는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본 연구의 결과들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에서도 동일한 범주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일반화하기 어렵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자기 범주화 양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초기 범주화를 다루기 위해 암묵적인 검사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초기 범주화 이후 일어나는 변화는 알기 어렵다. Ito 등 (2003)의 뇌 활성화 연구에 따르면 초기 범주화 이후에 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초기 범주화 이후 여러 가지 상황적인 맥락이 자기 범주화에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의 연구들은 초기 범주화 이후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아 발생할 수 있는 자기 범주화의 변화과정을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각 범주별로 남녀의 차이를 알아보는데 그쳤으나 추후 연구를 통해 세 가지 범주간의 비교가 체계적으로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혜숙 (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

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1-33.

로렌츠 저, 송준만 역 (1986). 공격성에 관하여.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방희정, 조혜자 (2004). 성 고정관념 활성화가 남녀의 자아해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83-106.

설동훈 (1997).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회의 상호작용. 노동문제 논집, 11집 131-159. 고려대학교 노동문제 연구소.

우남희 (1994). 학령전 아동의 사람 범주화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1), 137-150.

이재호, 방희정, 최상진 (2004). 한국인의 성별 지식의 암묵적 표상: 남녀 범주의 비대칭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83-102.

이재호, 조공호, 오경기, 김미라 (2001). 사회적 범주의 암묵적 표상구조: 성별 고정관념의 비채칭적 점화효과. 인지과학, 12, 43-54.

이재호, 조혜자, 방희정 (2001).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구조: 성별단서, 범주 전형성 및 성별 선호도의 상호작용.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 49-67.

이철우 (2003). 국적과 종족성에 의한 집단적 자아와 타자의 구별. 사회이론, 13-46. 한국사회이론학회.

조공호 (1996). 문화 유형에 따른 동기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33-273.

조혜자 (2002). 여성, 존재인가 과정인가: 여성 심리 이론과 실제. 서울: 철학과 현실사.

조혜자 (2005). 젠더 범주가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연구, 8호, 40-72. 가톨릭대학교 인간학 연구소.

조혜자, 방희정 (2004). 자기 긍정성과 성 고정

- 관념: 무엇이 여성에게 우선적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181-201.
- 최상진 (2002). 한국인의 인간관계. 사회과학연구소 가을 심포지엄 자료집.
- 황상민, 양진영, 강영주 (2003). 세대집단의 가치로 구분된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그에 따른 권위주의 성향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2), 17-33.
- Aronson, J., Quinn, D., & Spencer, S. (1998). Stereotype threat and the academic underperformance of minorities and women. In J. Swim & C. Stangor(Eds.), *Prejudice: The target's perspective*(pp. 83-103). NY: Academic Press.
- Bargh, J. A. (1994). The four horsemen of automaticity: Awareness, intention, efficiency, and control in social cognition. In R. S. Wyer, T. K. Srull, & K. Thomas(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Vol. I, pp. 1-40). Hillsdale, NJ: Erlbaum.
- Baumeister, R. (1998). The Self.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680-739). NY: McGrawHill.
- Bodenhausen, G., & Macrae, C. (1998). Stereotype activation and inhibition. In R. Wier(Ed.), *Advances in social cognition*(Vol. II, pp. 1-52). Mahwah, NJ: Erlbaum.
- Boldry, J. G., & Kashy, D. A. (1999). Intergroup perception in naturally occurring groups of differential status: A social relations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6), 1200-1212.
- Chodorow, N. (1989). *Feminism and psychoanalytic theory*. New Haven: Yale Univ. Press.
- Cross, S.,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1), 5-37.
- Cuddy, A. J., Norton, M. I., & Fiske, S. T. (2005). This old stereotype: The pervasiveness and persistence of the elderly stereotype.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267-285.
- Dasgupta, N., McGhee, D., Greenwald, A., & Banaji, M. (2000). Automatic preference for white americans: Elimination the familiarity explan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6, 316-328.
- Devine, P. G. (1995). Prejudice and out-group perception. In A. Tesser(Ed.), *Advanced social psychology*(pp.467-524). NY: McGraw-Hill.
- Eagly, A. (1995). The science and politics of comparing women and men. *American Psychologist*, 50, 145-158.
- Edwards, K., & Wetzler, J. (1998). *Too young to be old: The roles of self threat and psychological distancing in social categorization of the elderly*. Unpublished manuscript.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Fiske, S. (1993). Controlling other people: The impact of power on stereotyping. *American Psychologist*, 48(6), 621-628.
- Fiske, S. (1998).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357-411). NY: McGrawHill.
- Gilli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lick, P., & Fiske, S. (1999). Sexism and other "isms": Independence, status, and the ambivalent content of stereotypes. In W. Swann, J. Langlois, & I. Gilbert(Eds.), *Sexism and stereotypes in modern society* (193-222). Washington DC, APA.
- Glick, P., & Fiske, S. (2001). An ambivalent alliance: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s complementary justifications for gender inequality. *American Psychologist*, 56, 109-118.
- Fiske, S. (1998).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357-411). NY: McGraw-Hill.
- Fiske, S., Cuddy, A.,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878-902.
- Fiske, A., Haslam, N., & Fiske, S. (1991). Confusing one person with another: What errors reveal about the elementary forms of social re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656-674.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Greenwald, A., & Banaji, M.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 Greenwald, A., & Farnham, S. (2000).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to measure self-esteem and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1022-1038.
- Greenwald, A., Banaji, M., Rudman, L., Farnham, S., Nosek, B., & Mellott, D. (2002). A unified theory of implicit attitudes, stereotypes, self-esteem, and self-concept. *Psychological Review*, 109(1), 3-25.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 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 Ito, T., & Urland, G. (2003). Race and gender on the brain: Electrocortical measures of attention to the race and gender of multiply categorizable individu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4), 616-626.
- James, W. (1890/1983). *Principles of psychology*. NY: Holt, Rinehart, & Winston.
- Kohlberg, L. (1966). A cognitive-developmental analysis of children's sex-role concepts and attitudes. In E. Maccoby(Ed.), *The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s*.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 Mackie, D. M., & Hamilton, D. L.(Eds.) (1993). *Affect, cognition and stereotyping: Interactive processes in group perception*. NY: academic Press.
- Macrae, C. N., & Bodenhausen, G. V. (2001). Social cognition: Categorical person perception.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2, 239-255.
- Nelson, T. (2002). *The psychology of prejudice*. Boston: Allyn & Bacon.
- Nelson, T. (2005). Ageism: Prejudice against our feared future self.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207-221.

- Perdue, C., Dovidio, J., Gurtman, M., & Taylor, R. (1990). "Us" and "them":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process of inter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475-486.
- Snyder, M., & Meine, P. (1994). Stereotyping of the elderly: A functional approach.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63-82.
- Stangor, C., Lynch, L., Duan, C., & Glass, B. (1992). Categorization of individuals on the basis of multiple social feature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2, 207-218.
- Turner, J. C., & Oakes, P. J. (1989). Self-categorization theory and social influence. In P. B. Paulus (Eds.), *The psychology of group influence*(pp. 233-275). Hillsdale, NJ: Erlbaum.
-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J. Berman(Ed.),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Lincoln, NB: Univ. of Nebraska Press.
- Van Parys, M. M. (1983). *The relation of use and understanding of sex and age categories in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Denver, Denver, Colorado.
- 1 차원고접수 : 2006. 5. 10.
심사통과접수 : 2006. 6. 9.
최종원고접수 : 2006. 6. 19.

K C I

Implicit self categorization of Korean male and female students

Hyeja Cho

Heejeong Ba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implicit self categorization on the part of Korea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The study was based on measuring 3 sorts of IATs(Implicit Association Test) in which students are asked to sort human pictures of 3 idiographic categories(race, gender and age) and categorical words which are related to 'self' and 'other'. The results were summed up as follows: The gender category was more important for female students' self categorization than for male students'. The race and age categories were sensitive categories for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Many possible reason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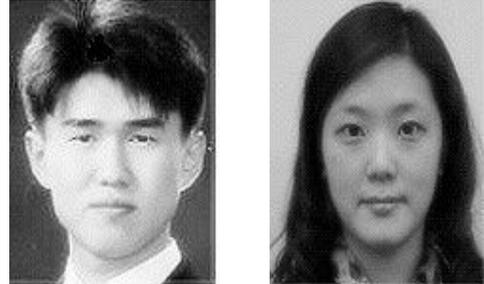
key words : self categorization, IAT, race category, gender category, age category

<부록> 얼굴사진

한국인 노인 남녀 사진: 각 5개



한국인 젊은이 남녀 사진: 각 5개



외국인 노인 남녀 사진: 각 5개



외국인 젊은이 남녀 사진: 각 5개

